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통일교육*¹

류삼준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2015 Revised Curriculum for Religious Studies and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Ryu, Samj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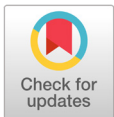
Seoul Jangsin University

samjryu@sjs.ac.kr

Abstract

Different from recent researches in the field of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this paper conducts the 'critical (praxis) correlation' work between '2015 Revised Curriculum for Religious Studies' and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s one of the efforts to find some points of agreement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purpose of '2015 Revised Curriculum for Religious Studies' and Christian schools' complaints and suggestions. More specifically, prior to the critical (praxis) correlational discussion, this article indicates that both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nd public education have a clear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entering into dialogue with each other about 'Curriculum for Religious Studies,' based on each other's qualities and strengths by taking 'unification' as a common ground because both unifi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are remarkably important in Korea. Then, inspired by 'Curriculum for Religious Studies,' this study proposes some ways of transforming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nurturing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enhancing 'critical reflection' as a competency, and expanding its universal features by reaching agreement on the need for unification, improving opportunities for dialogue with other unification educations, and considering participants' contexts and characteristics. This paper also provides, conversely, som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in 'Curriculum for Religious Studies' in the future as its transformation, from Christian unification perspectives. In detail, the upcoming Curriculum should include 'religions in North Korea' as a part of its contents, describe more concretely religions' social and public roles including peacebuilding and conflict resolution, and add some 'integrated competencies' to its existing competencies as follows: hospitality, care, and 'peace-oriented global citizenship.'

Keywords: Revised Curriculum for Religious Studies,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critical (praxis) correlation,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unification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109-126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21>

Received: November 14, 2020

Revised: December 19, 2020

Accepted: December 21,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9년 11월 22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머리말

2015년 9월에 고시되었던 교양 교과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별책 19]) 중 하나인 ‘종교학 교육과정’(혹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종립학교 간의 의견 차는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이러한 의견 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신교계의 경우, 교육부의 종교학 교육과정이 ‘종파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혹은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을 추구하는 종립학교와 종교계의 목소리와 현실을 일축한 것이란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인 거부나 강제적인 수용이 아닌, 종교학 교육과정의 성격과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요구 사이의 접점을 찾는 작업, 즉 종교학 교육과정의 유용한 활용 방안이나 종립학교의 실정에 맞춘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해 왔다.²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접점을 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또 특별히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한국 사회와 교육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통일’이란 주제를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종립학교 사이의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핵심적인 매개체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여기서 단순히 개신교의 입장을 공교육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통일이란 주제를 종교학 교육과정에 무작정 주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통일과 관련된 개신교 종교교육의 이론 및 실천인 ‘개신교 통일교육’과 종교학 교육과정을 서로 ‘비판적’으로 ‘(실천) 상관계’ 시키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이 ‘비판적 (실천) 상관계방법(critical (praxis) correlational method)’이란 신학자인 트레이시(David Tracy)가 주창한 ‘비판적 상관계’를 이후 여러 학자들이 수정·보완·발전시킨 방법론으로, 그 골자는 어떤 두 가지(한쪽은 주로 이론을, 다른 쪽은 주로 실재를)를 병립시킨 뒤, 일방적 적용이나 수용이 아닌, 대화와 비판적 해석, 그리고 재기술(redescription) 등을 시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둘 모두의 ‘변혁(transformation)’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 이러한 ‘비판적 (실천) 상관계방법’은 특히 양쪽의 입장이 분리, 대립 및 갈등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역시 개신교 통일교육과 종교학 교육과정이라는 양쪽의 입장을 무작정 합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서로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양쪽 모두의 발전을 추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와 같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종교교육을 모두 다루는, 그것도 이 둘의 ‘비판적 (실천) 상관계’를 시도하는 작업은 아마도 학계에서는 처음이라 생각된다. 일반교육학 분야의 경우, 그동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을 연결하는 시도는 몇몇 있었지만,⁴ 이는 주로 도덕(혹은 윤리)이나 사회, 국어 등의 교과에 한정될 뿐, 종교교과를 다룬 연구는 아니었다.⁵ 이는 개신교 종교교육 및 통일교육의 연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개신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⁶ 개신교 종교교육에서 종교학 교육과정과 통일을 서로 연계해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⁷

이러한 시점에서, 비록 본 연구가 문헌연구에 의존한다는 한계와, 교재 혹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아닌 선택교과로서의 종교학 교육과정 및 공교육의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 및 방향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교과 교육과정과 개신교의 통일교육의 직접적인 연계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가 특정 교과에 집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꽤 의미가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본 연구는 ① 먼저 통일이라는 주제를 왜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종교교육의 연결점으로 삼는지, 또 통일을 그 연결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등,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통일교육 사이의 연계 자체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서술하려고 한다. 그런 후, ② ‘비판적 (실천) 상관계방법’에 기초하여, 우선 개신교 통일교육(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신교 통일교육을 포함한)의 발전 및 보완에 있어서 종교학 교육과정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역으로 ③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개신교 통일교육으로부터 찾아볼 것이다.

II.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통일교육 사이의 연계 가능성

본 장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두 연구 영역인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통일교육 사이의 ‘비판적 (실천) 상관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가능하고 또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하며, 그 출발점을 통일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설정하려고 한다.

1. 통일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있어서는 몰라도, 적어도 통일교육 자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통일 그 자체는 분단이라는 현실에 놓인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자 미래지향적 과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 및 통일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사들을 살펴보면, 21세기 한국 청소년 세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이나 관심에 있어서 저조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⁸ 부족한 역사인식 가운데 통일을 실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통일로 인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⁹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더욱 더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증은 각계각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논의 및 통일교육을 위한 노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40여 년간,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와 연구 기관들은 학교를 통일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관련 연구의 주제 및 내용도 “반공교육, 안보교육”에서 “평화교육, 민주시민 교육, 민족공동체교육,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교육 및 남북한 이해교육 등”으로 확대하고 다양화하였다.¹⁰ 특히 2000년대 이후 초·중등학교의 통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그 연구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¹¹ 이와 맞물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 교수학습자료’인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 교육”을 발행했는데, 이 자료는 이미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된 ‘통일교육’을 “다른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¹² 이처럼, 공교육과 학계에서는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한편,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 개신교 통일교육의 특징

분명 이러한 통일을 위한 교육적 노력은 비단 교육부나 통일교육원 등의 것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종교계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 청소년단체, 연수 및 훈련기관, 기업 등 한국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¹³ 이 중 개신교계는 꽤 오랜 기간에 걸쳐 활발하게 통일교육을 연구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비록 개신교의 경우, 예산 부족, 인식 부족,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교육적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혹은 독자적으로 교계의 다양한 비영리기관, 종립학교 및 대학교, 통일관련 연구소, 개교회(個教會) 등을 통해 통일교육에 힘써 오고 있다.¹⁴ 특히 개신교 종교교육학계에서는 21세기 들어서부터 일반교육학계와 유사한 추세로, 통일교육과 관련한 주제를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그 연구를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¹⁵ 이처럼 개신교 통일교육은 일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정도의 규모나 범위가 아닌 개신교회와 학계,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상당한 규모의 교육활동이자 연구라 할 수 있다.

개신교 통일교육의 경우,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통일의 개념 및 당위성을 개신교의 경전과 교리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세계 평화로 설정하는 ‘탈한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① 개신교 통일교육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일은 일반적인 통일교육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통합’이나 민족의 단결만을 의미하는¹⁶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평화 가운데 공존하는 모습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개신교에 있어서 통일이란 경전과 교리에서 말하는 사랑과 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신, 하나님의 범우주적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는 신의 절대적 주권 및 통치(섭리)를 의미하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및 실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¹⁷ 또한 ② 개신교 통일교육의 관점에서는, 이처럼 ‘평화로운 공존’으로서의 통일이란 신이 인간과 우주를 창조했을 때에 이미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과 그 교육은 개신교의 핵심적인 사명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와 개신교인은 한국인으로서는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신의 뜻을 따라 사랑, 정의, 인권, 평화 등 그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통일에 힘쓰고 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연계 가능성: 개신교 통일교육의 기여가능성

그렇다고 개신교 통일교육이 개신교라는 특정한 종교의 정신 및 교리에 기반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개신교 통일교육의 주장 및 제언들을 일축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것들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① 개신교 통일교육에서 말하는 통일의 이유와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공교육(정부)의 그것과 대치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언뜻 보면 정부의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이란 개념이¹⁸ 앞서 말한 개신교 통일교육의 개념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양쪽이 사용하는 언어 및 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사실 개신교의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평화, 정의 등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며, 인류애로 대변되는 개신교의 사랑이란 개념은 ‘민족공동체의식’을 담아내면서도 동시에 이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 통일교육은 정부와 교육부가 주도하는 통일교육과 다른 것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공교육의 통일교육에서는 종교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개신교 통일교육은 공교육의 통일교육은 물론 종교교과의 발전에 있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교육이 개신교 통일교육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② 통일과 통일교육의 주체에 당연히 개신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분명 통일과 통일교육은 정부와 교육부가 많은 책임을 안고 있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만이 그 유일한 주체는 아니다. 이미 정부와 교육부 외에도 많은 기관, 단체, 사회 등이 통일을 위해, 또 통일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 단체, 사회 중에는 개신교에 속하거나 개신교와 관련된 것들도 많다. 사실 통일과 통일교육은 누가 주체랄 것도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힘써야 할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한국인과 그 공동체가 통일과 통일교육의 주체라면 당연히 한국의 개신교계도 그 일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독단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행할 수도 없고, 시행해서도 안 되며, 개신교계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계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연계 가능성: 협력이 필요한 개신교 통일교육

공교육이 개신교 통일교육의 제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으로 직전에 제시한 개신교의 통일교육과 교육부의 통일교육 사이의 유사성 및 상호보완성, 그리고 통일을 향한 교육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개신교 통일교육이 공교육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도 작용할 수 있다.

분명 통일교육을 추구하는 개신교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 사이에는 통일이라는 대의를 놓고 상당한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근거 및 궁극적 목적에 있어서 종교적 성격과 관련된 차이점도 존재한다. 게다가 일부 개신교 통일교육은 대북 선교를 표방하는 포교론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개신교계가 통일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단지 개신교의 포교와 발전을 위해서만은 아니며, 앞서 서술했듯이, 다른 종교계와 마찬가지로 인권, 평화, 정의, 사랑 등 범인류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적 과제에 헌신적으로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① 개신교 통일교육은 국가적 과제라는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동시에, 정부의 통일교육 및 종교교육 정책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조를 위해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덧붙여, 앞서 공교육이 개신교 통일교육의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로, ② 통일과 통일교육의 주체는 단지 개신교회와 개신교인만은 아니란 점 역시 개신교 통일교육이 종교학 교육과정을 포함한 공교육의 시사점들을 성찰하며 활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개신교 통일교육에서 주장하는 개신교의 기본 교리와 정신이 통일을 위한 기초로 적절하다 할지라도 통일과 그 교육은 모든 분야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 개신교계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민족과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 단체들, 기관들이 참여해야 하는 범국가적·범세계적 과제이다. 따라서 개신교 통일교육은 자신만의 독단적이고도 일방적인 계획 및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통일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협력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공교육과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통일교육과 종교학 교육과정

이처럼 통일교육은 종교계와 교육부가 함께 연계해서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 앞에서 개신교 종교교육과 교육부 사이의 접점 중 하나인 ‘종교학 교육과정’ 역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신교 통일교육은 태생적으로 개신교 종교교육의 일부이며, 개신교 통일교육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교육의 종교교육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학 교육과정의 경우도 ‘통일교육’이 교육과정의 범교과 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공교육에서 추진하는 통일교육과 완전하게 분리·독립된 교과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교육부와 개신교계 종립학교 및 종교교육학계가 교육과정의 선정 및 시행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와 갈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각 차와 갈등을 이유로 통일과 그 교육에 대한 논의를 마냥 연기·생략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개신교 종교교육과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이 통일이란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서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개신교 통일교육이 개신교 종교교육의 전부는 아니며, 또한 종교학 교육과정의 모든 면이 통일교육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통일교육 사이의 대화의 필요성과 서로 간의 상호보완적 의미를 전제로, 두 영역 간의 ‘비판적(실천) 상관관계’를 시도하여 양측의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는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에 우선 다음 장에서는 개신교 통일교육이 종교학 교육과정으로부터 어떤 (종교)교육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다뤄보려고 한다.

III.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으로부터 개신교 통일교육에게로

1.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함양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의 특성으로부터 개신교 통일교육이 수용 및 발전시켜야 할 첫 번째는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이라 할 수 있다. 종교학 교육과정은 그 성격에서 분명하게 한국을 다종교·다문화사회로 전제하고 있으며 실천적 차원에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에 적합한 종교적 역량으로 “종교 문해 능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종교·다문화 감수성 또는 심미적·감성 능력(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⁹ 여기서 다른 역량도 직간접적으로 통일교육과 연관이 될 수 있겠지만, 연구자는 이 중에서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또 통일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한국 사회는 결혼 이민자, 북한탈출이주민, 귀화 국적취득인 등 다양한 문화권의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한국인과, 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주재원, 외국국적동포 등 다양한 국적의 장기체류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²⁰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 차원의 다문화 현상”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예외라 할 수 없는 분명한 다종교·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다.²¹ 그리고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문화·다종교적 현실은 개신교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전제이자 요소가 되어 버렸다.

사실, 최근의 개신교 통일교육에서는 이미 한국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더 이상 민족주의적 폐쇄성을 뜻하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둘 것이 아니라 개신교적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통일을 논의하고 통일교육을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²² 여기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개신교적 다문화주의’란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아닌, 화해를 추구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신(神)의 의도에 바탕을 둔 수평적 관계, 다른 사람·문화를 통한 자기 성찰, 대화의 원리, 환대의 정신, 상호 이해 및 존중 등의 개신교적 실천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이 갈등, 차별, 편견, 배척 등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야함을 역설(力說)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³

이처럼 개신교 통일교육에서 다문화·다민족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나, 한국 사회가 ‘다종교사회’란 사실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술(前述)했던 개신교 통일교육의 다문화적 접근이 큰 의미에서는 이웃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이해, 존중, 포용 등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분명하게 구체화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학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 종교 현상에 대해 상호 공존, 편견과 차별 해소 등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요청되는 가치들과 관련하여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인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은²⁴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로 인한 다양한 갈등, 차별, 편견 등은 지양하면서 종교 간의 상호 공존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 통일교육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개신교 통일교육은 이러한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함양을 통해,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와 문화적 배경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태도뿐만 아니라²⁵ 이웃종교와 종교인(북한의 종교와 종교인을 포함하여), 그리고 비종교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 또 통일을 위해 다른 종교와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다문화·다종교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으로서 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종교와 국가 그리고 통일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성찰하고 결단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2. ‘비판적 성찰 능력’의 증대

두 번째로 개신교 통일교육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이 명시한 ‘비판적 성찰 능력’을 앞으로 추구해야 할 역량 중의 하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종교학 교육과정에 따르면, ‘비판적 성찰 능력’이란 “다양한 종교 현상에 관해 다각도로 질문하고 다층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이며, “종교에 관한 자신과 타인의 전제 또는 가정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²⁶ 따라서 앞서 서술한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이 이웃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정 및 존중의 태도라면, ‘비판적 성찰 능력’은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포함한 종교와 문화 전반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묻고 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개신교 통일교육에 활용한다면, ‘비판적 성찰 능력’이란 먼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종교, 그리고 통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다각도로 살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이웃종교와 문화 그리고 이들이 통일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가지는 장점과 폐해를 인식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통일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상황을 종교와 문화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이 개신교의 통일교육에 필요한 이유는, 이 능력의 배양을 통해 먼저 개신교는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상황과 요구를 간과한 채 통일을 지나치게 감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지나치게 신비적이며 기원(祈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비판적 성찰 능력’의 함양은 통일에 대한 교계나 기관, 단체들의 주장과 지도(指導) 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 통일을 향한 기대감과 필요성을 가지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는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 성찰 능력’은 개인의 독립적인 반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²⁷ 이러한 점은 종교학 교육과정이 ‘비판적 성찰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의 종교적 경험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배려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의사소통 능력’을 연계된 역량으로 배치한 점에도 잘 드러난다.²⁸ 물론 이미 개신교 통일교육에서도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전인적 차원에서 형성해야 할 역량의 일부로 보고 있다.²⁹

하지만 ‘비판적 성찰 능력’은 자기반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로만 끝나지 않으며, 종교학 교육과정에 의하면, 이러한 자기반성과 대화를 토대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³⁰ 따라서 연구자가 보기에, 개신교 통일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비판적 성찰 능력’은 모든 교육참여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반성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또 통일을 향한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실행에 옮기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통한 건설적 성찰을 개신교를 비롯한 여러 통일교육에서는 주로 남북 간에 활용해야 할 능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명확하게 종교인 간의 대화,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대화에 활용해야 할 능력이라고는 기술하지 못한 면이다. 그러므로 이 ‘비판적 성찰 능력’은 앞서 서술한 ‘다종교 감수성’과도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웃종교인 및 비종교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능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연구자는 이를 위해, 개신교 통일교육은 물론 종교학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기 성찰 및 신앙적 확신을 바탕으로 이웃종교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통일을 향한 건설적 대화에 힘쓰려는 태도와 행동을 장려하는 간(間)종교교육(interreligious education)적 접근이³¹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3. 보편성의 확대

세 번째로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의 주는 시사점은 보편성의 확대이다. 이번 종교학 교육과정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공교육이라는 방침에 아래,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양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³² 달리 말하면, 종교학 교육과정은 특정 종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종교와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종교만이 아닌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교육의 내용, 교육의 대상, 교육의 결과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³³

물론 개신교 통일교육의 경우, 특정 종교의 이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하기에 그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공교육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앞서 서술했듯이) 개신교 통일교육이 분명 공교육에 대한 상호보완의 역할을 추구해야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개신교 통일교육이 지나치게 자신만의 특성을 고집해서는 안 되며, 어느 정도는 앞서 서술한 교육이 가져야 할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종교학 교육과정의 보편성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개신교 통일교육이 내포해야 할 교육적 보편성을 아래와 같이 세 가지만 서술하고자 한다.

1)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보편성

무엇보다도 개신교 통일교육은 우선 개신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사회의 구성원에게 영감을 주는, 또 그들을 납득시킬 만한 설득력 있는 통일의 당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교학 교육과정의 경우, 비록 통일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인류의 공존을 위한 종교적 성찰과 연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³⁴ 이는 학습자는 물론 다양한 종교계를 납득시킬 만한 종교학 교육과정의 목적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개신교 통일교육 역시 단순히 개신교인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종류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한국인과 세계인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도 있다.³⁵

2) 다른 통일교육과의 대화 가능성으로서의 보편성

개신교 통일교육이 갖춰야 할 두 번째 교육적 보편성은 공교육을 비롯한 여러 통일교육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종교학 교육과정의 경우, 정부의 정교분리 방침 및 종교에 대한 객관적(혹은 중립적) 이해 등을 추구하고 있어,³⁶ 언뜻 보기에는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의 입장을 취하는 종립학교나 종교교육계와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교학 교육과정은 다종교사회에서의 다양한 갈등 해소의 추구, 다양한 종교의 특성 및 상호관련성에 대한 포괄적 이해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적 성숙과 존엄성의 회복을 향한 ‘인성·영성교육적 접근,’ 학생 자신의 신앙과 종교생활을 돌아보도록 돕는 ‘성찰적 접근 및 간종교교육적 접근’ 등을 통해 얼마든지 개신교계를 포함한 여러 종교교육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³⁷

따라서 개신교 통일교육 역시 개신교만의 정신과 특성은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공교육을 비롯한 여러 통일교육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대화, 협력할 수 있도록 그 핵심 목적, 가치, 주제 등을 좀 더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개신교 통일교육은 반드시 비개신교인과 무종교인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앞서 언급했듯이 개신교 통일교육은 예산, 인적자원의 수, 시설, 법적·제도적 뒷받침, 체계성 등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³⁸ 이러한 교육적 요소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통해 여타 통일교육과 연계하면서 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³⁹ 다른 통일교육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면 좋을 것이다.

3) 학습자의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하는 보편성

마지막으로 개신교 통일교육이 포함해야 할 보편성은 청소년들의 상황과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반영하여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비록 종교학 교육과정이 종교교과 학습에 있어서 실제로 청소년들의 내적 동기 및 흥미를 얼마나 유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⁴⁰ 이 교육과정은 청소년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그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강의법’뿐만 아니라, ‘대화식 수업’, ‘세미나 수업’ 및 ‘문제해결·발견·탐구·구안학습’을 비롯하여 ‘현지조사’, ‘시청각 교육’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⁴¹ 그러므로 개신교 통일교육 역시 개신교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실천을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체험학습, 협력학습, 윤리적 능력 배양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⁴²

IV. 개신교 통일교육으로부터 2015 개정 종교학 종교과정에게로

이제 연구자는 ‘비판적 (실천) 상관관계방법’을 통해 역으로 개신교 통일교육이 종교학 교육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둘 사이의 ‘비판적 (실천) 상관관계’는 또한 교육부의 ‘통일교육 자료’와 종교학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작업도 포함할 것임을 밝힌다. 이는 비록 ‘통일교육 자료’가 종교교과와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육은 ‘범교과 주제’이기 때문에 개신교 통일교육과 함께 ‘통일교육 자료’를 다룬다면, 종교학 교육과정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신교 통일교육이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1. 북한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의 포함

먼저 종교학 교육과정은 그 내용에 ‘북한의 종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개신교 통일교육은 북한의 교육적 상황과 실태뿐만 아니라 종교적 상황과 실태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연구가 통일을 준비하고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⁴³ 마찬가지로 종교학 교육과정 역시 이러한 북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다룬다면, 통일은 물론 다종교·다문화사회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때, 북한 종교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이 아닌 종교학 교육과정의 취지와 일치하는 방향에서 북한의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종교학 교육과정이 명시적으로 포함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세 가지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개정될 종교학 교육과정은 ①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의 역사·문화적 특징들’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과 같이,⁴⁴ 북한의 다양한 종교들의 역사·문화적 특징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② 기존의 종교학 교육과정이 종교를 인간관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하여 다루고 있는 만큼,⁴⁵ 앞으로는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 및 이와 연관된 인권 문제도 북한의 종교 정책과 함께 다루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주제는 개신교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통일교육에서도 ‘북한 이해’라는 내용 요소 안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학습내용이므로,⁴⁶ 더욱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③ 종교학 교육과정은 이미 ‘한국 종교의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징’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북한에 남아있는 종교적 문화유산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이를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확대는 단순히 북한의 종교와 관련된 몇몇 주제나 정보를 추가하는 것에 머물기보다는, 우선은 남북한의 것을 비교하면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부가 제공하는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자료’에서 북한의 정책, 경제, 지리적 특성, 사회, 생활, 교육, 체제, 명절, 언어, 청소년의 학교생활 등 다양한 요소를 다루고 있으므로,⁴⁷ 종교학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 자료’의 이러한 요소들을 종교와 연결시켜서 다루면 더 좋을 것이다.

2. 종교의 사회적 및 공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 서술

개신교 통일교육에 비춰볼 때, 종교학 교육과정이 두 번째로 보완할 부분은 종교의 사회적·공적(公的) 역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서술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종교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개별) 종교가 “시민운동, 복지, 언론, 민간외교, 교육,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 자체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나,⁴⁸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한 면이 있다. 물론 “젠더 평등의 토대”가 된다고나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해법을 제공한다’는 등 종교의 긍정적 역할을 서술한 부분도 있지만,⁴⁹ 이 부분 역시 비교적 추상적이며 간단한 서술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종교학 교육과정은 도덕적·윤리적 시각의 확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대해 어떤 긍정적인 사회적·공적 기능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담아내면 좋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개신교 통일교육이 강조하는 종교의 수많은 (긍정적) 사회적·공적 역할 중에서 향후 종교학 교육과정이 명시했으면 하는 것으로 평화와 갈등 해소라는 두 가지를 특별히 제시하고 싶다.

1) 평화를 향한 종교의 노력

개신교 통일교육은 ‘평화’를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통일의(혹은 통일을 넘어선 세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 역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과업으로 간주하고 있다.⁵⁰ 특히 여기서 개신교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평화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소위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정의와 자유와 인권 존중과 평등이 실현”되어 “개인과 사회가 위협과 방해 없이 안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위 ‘적극적 평화’이다.⁵¹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신교 통일교육은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질서와 화합을 바탕으로 온전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일상 속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평화를 이뤄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⁵²

따라서 향후 종교학 교육과정은 종교로 인한 폭력, 전쟁 등과 같은 주제와 더불어, 통일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평화 및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개신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어떤 역할 및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미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통일교육 자료’에서 종교와 관련된, 또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종교학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종교의 사회적·공적 역할과 연결해서 다루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의 노력

또 종교학 교육과정은 종교와 관련된 갈등에 있어서 다소 종교 간의 갈등과 그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 종교 간의 갈등 외에도 (종교와 복잡하게 맞물린 것들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갈등, 즉 계층, 지역, 세대, 이념, 문화, 국적·민족성 등과 관련된 갈등이 산재(散在)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 종교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 해소의 동력이자 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 통일교육 역시 한국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통일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자 통일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⁵³ 흥미롭게도 이는 또한 교육부가 작성한 중학교용 ‘통일교육 자료’에도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공존의 모색이라는 표현으로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다.⁵⁴

그러므로 향후 종교학 교육과정은 종교 간의 갈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등에도 주목하면서 종교가 한

사회나 국가,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완화·해결하기 위해, 또 궁극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적극적 평화’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서술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종교인으로서의 한 개인이 다양한 갈등의 해소 및 완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는 물론, 종교적 공동체 및 단체가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대화와 화해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야 하는지도 명시하면 좋을 것이다.

3. 종교와 관련된 ‘통합역량’의 추가

개신교 통일교육이 향후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선에 주는 세 번째 영감은, 개신교 통일교육에서 가치 있게 제시하는 범종교적 역량(혹은 덕목) 중 일부를 종교학 교육과정에 추가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역량은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의 과정에 동참하고, 통일 이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앞서 서술한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위해 갖춰야 할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금희는 개신교 통일교육이 제시하는 역량은 “학습자의 삶 전체 즉 정서적, 의지적, 행동적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역량’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⁵⁵

이러한 ‘통합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록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이 종교에 관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의적, 실천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다종교·다문화사회에 적절한 종교교과의 성격으로 표방하긴 했지만, 그 능력의 상당 부분은 이해, 성찰, 의사소통(대화) 등이어서 개인적·이성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⁵⁶ 또한 공감, 배려, 존중 등의 정서적 차원과 함께 실천과 결단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종교에 대한 객관적·비판적 접근의 차원에서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 짙은 반면, 사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종교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덕목이나 체계를 서술하는 실천적·공동체적 차원에서의 논의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⁵⁷ 이에 연구자는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교적 ‘통합역량’ 중 특별히 다음의 세 가지를 향후 종교학 교육과정이 추가·보완할 만한 전인적 ‘통합역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환대

첫 번째로 개신교 통일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학 교육과정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 실천적·공동체적 역량은 ‘환대’이다. 여기서 개신교 통일교육(혹은 종교교육)이 말하는 환대란, 그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나 이웃종교에 말하는 환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른(혹은 낮은)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무관심이나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차원에서 공동체성을 지향하면서 열린 마음(개방성)과 정직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며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⁵⁸

특히 개신교 통일교육은 이러한 환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북한인, 외국인 근로자 등과도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⁵⁹ 비슷한 이유로, 개신교 종교교육에서도 이러한 환대의 정신을 통해 이웃종교를 존중하고, 이웃종교와 기꺼이 대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간주하고 있다.⁶⁰ 따라서 향후 개선될 종교학 교육과정에는 이 환대가 그 역량(의 일부) 및 내용으로 명시되면 좋을 것이다.

2) 돌봄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종교적 ‘통합역량’이자 정서적 및 공적(公的) 덕목은 바로 ‘돌봄’이다. 사실 돌봄이라는 가치는 앞서 제시한 환대와 매우 긴밀하면서도 중첩되는 면이 있는, 또한 배려, 나눔, 공존, 평화 등의 이상(理想)들과 종합적으로 논의되면 더 좋은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연구자가 여기서 특별히 돌봄을 다른 덕목들과 분리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돌봄이 자칫 ‘여성적 가치’로 여겨져 통일과 종교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서이다. 이러한 이유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기숙의 연구인데, 그는 자신의 연구 중 하나에서, “생명, 용서, 돌봄, 배려, 화해, 협력, 타자성” 등이 여성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은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삶에서도 꼭 필요한 덕목들이라고 역설하고 있다.⁶¹

다시 말해, 누군가(때론 자신)를 보살피고, 그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때론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돌봄’은 비단 우리의 ‘어머니’나 ‘여자’만의 특성이나 의무가 아니라 종교인은 물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정신이자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학 교육과정은 앞으로 이러한 돌봄의 정신(혹은 역량)을 명확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3) ‘평화 지향의 세계 시민’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개신교 통일교육의 덕목이자, 앞으로 종교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역량(의 내용 및 요소)으로 추가되었으면 하는 것은 ‘평화 지향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신교 통일교육의 방향을 보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단일 민족주의가 유발할 수 있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지적하면서, 통일 및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단일 민족주의에서 ‘열린 민족주의’로, 더 나아가 ‘열린 민족주의’로부터 온 인류가 신의 주관과 섭리 아래 평등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전제하는 다문화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⁶² 이를 교육부가 발간한 ‘통일교육 자료’의 표현으로 한다면 ‘통일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이라 할 수 있으며,⁶³ 비록 ‘세계 시민’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5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여 개발한 소위 ‘통일시민 교과서’의 그 ‘통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종교학 교육과정이 ‘다문화·다종교사회’라는 ‘세계 시민’의 정체성 및 역할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거나,⁶⁴ 반면 이를 보다 발전시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을 그 역량 및 내용에 분명하게 포함하여 기술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후의 종교학 교육과정은 이미 다루고 있는 세계의 종교 및 세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차별과 인권유린의 문제, 그리고 생명과 생태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한국인이자(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세계인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길을 잘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평화 지향의 세계 시민’이라는 ‘통합역량’을 명확하게 그 역량 및 내용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본 연구는 최근에 이뤄진 개신교 통일교육의 연구 중 드물게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통일교육 사이의 ‘비판적(실천) 상관관계’를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먼저 통일과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한 바, 개신교 통일교육과 공교육이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해 ‘통일’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대화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② 이어서 종교학 교육과정이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함양, ‘비판적 성찰 능력’의 증대, 보편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신교 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③ 그런 후에, 역으로 개신교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그 내용에 ‘북한의 종교’를 포함할 것과, 종교의 사회적·공적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몇 가지 ‘통합역량’을 추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의 종교교육과 개신교 종교교육이 서로의 갈등을 일부분 해소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걸음 더 내딛고, 공교육과 개신교계, 더 나아가 종교계 모두가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 비록 본 연구가 그 핵심 주제의 현장성에 비해 문헌연구를 주요 방법론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⁶⁵ 한편으로 이러한 한계가 앞으로 이어질, 종교교육 및 개신교 통일교육 분야의 임상 및 현장을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들로 인해 일정 부분 극복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꼭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과 종교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계획 및 선정, 교과서의 개발 및 활용, 일선의 현장 및 담당자들의 요구 파악, 중립학교 학생들의 의견 반영,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 조사, 흥미 유발을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법의 연구,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 혹은 통일교육 등에 관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기를, 그리고 본 연구는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더 바라는, 무엇보다도 입시, 지나친 경쟁, 가정 문제, 각종 폭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중압감, 외상 등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 통일을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통일과 종교가 당장 자신의 삶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을 수많은 학생들이 종교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해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통일 한국과 평화로운 세계라는 미래를 희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정, 종교계,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다 함께 협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의 취지와 개신교계 종립학교의 비판 및 요구 사이의 접점을 찾는 작업의 하나로, 최근에 이뤄진 개신교 통일교육 및 종교교육의 연구 중 매우 드물게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통일교육 사이의 '비판적(실천) 상관관계'를 시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본 연구는 '비판적(실천) 상관관계'에 앞서, 통일과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한 바, 개신교 통일교육과 공교육이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종교학 교육과정에 대해 '통일'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대화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이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함양, '비판적 성찰 능력'의 증대,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의 보편성, 다른 통일교육과의 대화 가능성으로서의 보편성, 또 학습자의 상황 및 특성을 반영하는 보편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신교 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 후에, 역으로 개신교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종교학 교육과정의 개선을 지향할 때, 향후의 종교학 교육과정은 그 내용에 '북한의 종교'를 포함할 것과, 평화와 갈등 해소의 추구를 포함한 종교의 사회적·공적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그리고 환대, 돌봄, '평화 지향의 세계 시민'과 같은 종교와 관련된 '통합역량'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종교학 교육과정, 개신교 통일교육, 비판적(실천) 상관관계, 개신교 종교교육, 통일

참고문헌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고영은, 「북한 사회의 기독교 인식 변화 분석」 『장신논단』 45집(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3).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교육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 교육-고등학교』.

교육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 교육-중학교』.

김기숙, 「여성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정보』

- 제50집(천안: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6).
- 김도일, 『조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나눔사, 2013.
- 김병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64호(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9).
-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현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50권(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9).
- 김정효 외,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 속의를 통한 신조 구축」 『기독교교육논총』 제52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7).
- 김현숙, 「다문화주의 담론과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권(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13).
- 김현숙,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남덕우, 「북한 종교 정책에 따른 신앙생활 실천방안」 『신학과 실천』 제42호(천안: 한국실천신학회, 2014).
- 류삼준·손원영,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박종우, 「북한의 교육론과 종교론 연구를 통한 통일시대 북한 기독교교육 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법률 제15433호,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2008#0000>(2019년 11월 10일 접속).
- 성백 외,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통일교육연구의 동향분석」 『기독교교육정보』 제55집(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7).
- 손원영, 『한국문화와 영성의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송명현 외, 「초·중등학교 통일 교육과정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4권(서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6).
- 송은신, 「한국 초등 및 중등교육의 민족 및 통일교육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 양금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8.
- 오현선, 『다름 다양성 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 유재덕, 「기독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제42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5).
- 윤응진, 「기독교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교육논총』 제29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2).
- 이윤석,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기독교교육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제27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0).
- 이은경, 「청소년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 『기독교교육논총』 제29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2).
- 이현우, 「기독교적 남북통일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연구」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임창호, 「한국교회 통일교육의 시스템화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제51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7).
- 정연선 외,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통일 교육 관련 성취기준 분석: 2015 개정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1권(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9).
- 정윤주, 「다문화적 접근에 기초한 기독교 청소년 통일 교육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만준, 「다문화 사회의 기독교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 11권(안양: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 조영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Kujawa-Holbrook, Sheryl A., *God Beyond Borders: Interreligious Learning among Faith Communities*.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4.
- Palmer, Parker J.,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3.

Endnote

- 1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9년 11월 22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2 류삼준·손원영,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개신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김정호 외,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 속의를 통한 신조 구축」 『기독교교육논총』 제52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7) 등.
- 3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2-34쪽; 김현숙,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83-190쪽. '비판적 (실천) 상관관계'의 기본 개념 및 트레이시 이후에 수정·보완·발전된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책들을 참고할 수 있다.
- 4 그 대표적인 예로는, 김병연,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통일교육 내용에서 쟁점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64호(서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9)와 정연선 외,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통일 교육 관련 성취기준 분석: 2015 개정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51권(서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9) 등이 있다. 특이하게, 개신교 종교교육학계에서도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김도일, 『조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나눔사, 2013)이 바로 그것이다. 김도일은 이 책의 제3장에서 남북한의 도덕교과와 그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 5 송명현 외, 「초·중등학교 통일 교육과정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4권(서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6), 17쪽.
- 6 송은신, 「한국 초등 및 중등교육의 민족 및 통일교육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 7 성백 외,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통일 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기독교 교육 정보』 제55집(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7), 114-115쪽.
- 8 김도일, 앞의 책, 19-20쪽.
- 9 이은경, 「청소년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 『기독교교육논총』 제29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2), 388쪽.
- 10 김도일, 앞의 책, 30쪽; 이은경, 앞의 글, 385쪽.
- 11 송명현 외, 앞의 글, 2-3, 15쪽.
- 12 교육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 교육-고등학교』, 7쪽.
- 13 김도일, 앞의 책, 35-36쪽.
- 14 위의 책, 37-38쪽; 이은경, 앞의 글, 380쪽.
- 15 성백 외, 앞의 글, 107쪽.
- 16 교육부, 앞의 책, 7쪽.
- 17 양금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8), 37-57쪽.
- 18 법률 제15433호(2018. 3. 13. 일부개정, 2018. 9. 14. 시행), 2019년 11월 10일 접속,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2008#0000>.

- 19 교육부,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9]), 25쪽.
- 20 김현숙, 「다문화주의 담론과 기독교교육」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6권(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13), 271-273쪽.
- 21 이윤석,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기독교교육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제27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0), 208쪽.
- 22 유재덕, 「기독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제42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5), 252-253쪽; 조만준, 「다문화 사회의 기독교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 11권(안양: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181쪽.
- 23 정윤주, 「다문화적 접근에 기초한 기독교 청소년 통일 교육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5, 35-64쪽; 이윤석, 앞의 글, 210쪽.
- 24 교육부, 앞의 책, 25쪽.
- 25 오현선, 『다름 다양성 관용』 (서울: 꿈꾸는터, 2014), 79쪽.
- 26 교육부, 앞의 책, 25쪽.
- 27 강희천, 앞의 책, 28-29쪽.
- 28 교육부, 앞의 책, 25쪽.
- 29 양금희, 앞의 책, 229-230쪽.
- 30 교육부, 앞의 책, 25쪽;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서울: 박문사, 2012), 389쪽.
- 31 간종교교육(interreligious education)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eryl A. Kujawa-Holbrook, *God Beyond Borders: Interreligious Learning among Faith Communities*(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14), pp. xxxii-xxxiii, 2-3와 책의 나머지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 32 고병철, 앞의 책, 417-419쪽.
- 33 류삼준·손원영, 앞의 글, 87쪽.
- 34 교육부, 앞의 책, 25-26쪽.
- 35 이은경, 앞의 글, 389쪽.
- 36 교육부, 앞의 책, 25-26쪽.
- 37 류삼준·손원영, 앞의 글, 90-92쪽.
- 38 임창호, 「한국교회 통일교육의 시스템화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제51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7), 32쪽.
- 39 위의 글, 34-35쪽.
- 40 류삼준·손원영, 앞의 글, 88-89쪽; 조영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121-123쪽.
- 41 교육부, 앞의 책, 36쪽.

- 42 이은경, 앞의 글, 389쪽.
- 43 박종우, 「북한의 교육론과 종교론 연구를 통한 통일시대 북한 기독교교육 방향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현우, 「기독교적 남북통일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연구」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20-121쪽; 남덕우, 「북한 종교 정책에 따른 신앙생활 실천방안」 『신학과 실천』 제42호(한국실천신학회, 2014); 고영은, 「북한 사회의 기독교 인식 변화 분석」 『장신논단』 45집(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13), 246-247쪽.
- 44 교육부, 앞의 책, 26쪽.
- 45 위의 책, 27쪽.
- 46 교육부, 『통일교육』, 9쪽.
- 47 위의 책, 55-82쪽.
- 48 교육부, 『교양 교육과정』, 30-31, 40쪽.
- 49 교육부, 앞의 책, 38-39쪽.
- 50 양금희, 앞의 책, 22-27쪽; 윤응진, 「기독교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교육논총』 제29집(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2).
- 51 양금희, 앞의 책, 22-23쪽.
- 52 김기숙, 「여성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기독교교육정보』 제50집(천안: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6), 11-13쪽.
- 53 위의 글, 15쪽; 윤응진, 앞의 글, 51-52쪽.
- 54 교육부,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교육-중학교』, 28-29쪽.
- 55 양금희, 앞의 책, 226쪽.
- 56 류삼준·손원영, 앞의 글, 95쪽.
- 57 같은 글.
- 58 Parker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3), pp. 73-74.
- 59 김선일, 「통일의 시대를 위한 환대의 실천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제50권(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9).
- 60 손원영, 『한국문화와 영성의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65-171쪽.
- 61 김기숙, 앞의 글, 4-7쪽.
- 62 유재덕, 앞의 글, 252-254쪽.
- 63 교육부, 앞의 책, 34쪽.
- 64 위의 책, 28-29쪽.
- 65 성백 외, 앞의 글, 115쪽.